



현장과 승리

<http://kttu.or.kr>



제13-149호

2018년 12월 28일(금)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발생한 아현사옥 화재로 심려가 큰 와중에도 전 임직원이 하나된
동지애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신속한 복구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앞장서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했습니다.

힘을 모아주신 KT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기적 상황일수록 솔선해서 우리들의 일터요 직장인
KT를 지키고 행동하는 마음들은 모두가 하나이며
자랑스런 자부심입니다.
회사 또한, 이렇게 침착하고 헌신적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조합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13대 집행부가 벌써 첫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께 드린 약속과 공약을 하나 하나 실현해 내면서
결실을 드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출범 2년차인 내년에는
보다 치밀한 전략과 계획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골고루 혜택 받는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울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칠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김해관

